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자금투자

윤영순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징표로 된다.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첨단수준에 올라선 나라,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과학기술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자금투자를 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3페이지)

현시기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자금투자를 늘이는것은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자금투자를 늘이는것이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과학기술강국건설이 자금적보장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과학기술강국건설은 많은 자금지출을 전제로 한다.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자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뿐아니라 새로운 연구분야를 더 많이 개척하고 세계적수준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과학연구기관의 유지운동을 위한 과학연구자재비, 도서비, 생활비, 려비, 사용료, 건물관리비, 사무통신비, 연구용설비 및 비품비, 출판물보상금 등과 같은 많은 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과학연구분야를 개척하고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하여도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문헌들을 구입하고 그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연구성과를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제품설계와 공정설계, 시험생산과 시제품생산 등과 같은 자금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우기 과학기술강국건설은 말그대로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세계적인 첨단수준에 올려세울뿐아니라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인것으로 하여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자금지출일반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방대한 자금지출을 요구한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자금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일 때만이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자금투자를 늘이는것이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오늘날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설때문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룩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

의 과학기술중시정책과 첨단돌파전으로 하여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부문과 응용과학부문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정보기술과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핵심기초기술과 새 재료기술, 새 에너지기기술, 우주기술, 핵기술과 같은 과학기술분야들에서 급속한 발전이 이룩되고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첨단돌파전의 불길속에 모든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대화,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실현되고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이것은 오늘날 그 어느때보다도 과학기술발전에 보다 더 많은 자금을 돌려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자금적으로 원만히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자금투자를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국가예산자금에 의한 지출을 늘이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예산은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자금보장의 기본공간으로 된다.

국가예산은 국가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중앙집중적으로 형성하고 분배리용하는 국가의 기본재정계획으로서 국가예산자금은 나라살림살이의 기본원천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 자금수요를 인민들이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한 생산물을 국가예산수입을 통하여 국가에 동원하고 그것을 예산지출을 통하여 분배함으로써 보장한다.

국가예산자금에 의한 지출을 늘이자면 선차적으로 국가예산편성단계에서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지출을 늘여야 한다.

국가예산편성은 나라살림살이를 미리 계획하는 사업 다시말하여 국가가 전반적나라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하여 예산수입과 지출의 규모를 확정하고 그것들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사업이다.

국가예산편성단계에서 과학기술부문을 비롯한 국가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지출할 자금규모가 제정되고 그것이 법으로 채택된다. 법으로 채택된 국가예산은 나라살림살이를 위한 기준으로, 척도로 되어 그대로 집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자면 선차적으로 국가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그 몫을 체계적으로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예산편성단계에서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늘이는 문제는 과학기술발전사업비의 몫을 늘이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사업비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긴절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국가예산지출형태의 하나이다.

예산편성단계에서 과학기술발전사업비계획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해당 시기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자금담보가 좌우된다. 아무리 국가예산집행을 정확히 한다 하더라도 자금지출의 기준이며 척도인 계획을 바로 편성하지 못하면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할수 없다.

국가예산편성단계에서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늘이는데서는 우선 과학연구기관유지비를 늘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과학연구기관유지비는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기 위한 자금보장의 중

요한 공간이다.

과학기술의 종합적발전추세와 사회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과학분야들이 개척되고 그 분야에 대한 과학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그를 위한 전문과학연구기관들을 내고 유지운영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늘이는데서는 우선적으로 과학연구기관유지비를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예산편성단계에서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늘이는데서는 또한 기술발전사업비를 늘여야 한다.

기술발전사업비는 공장, 기업소들이 과학연구성과들을 받아들이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과학연구비와 구별된다.

새로운 과학연구결과는 제품설계와 공정설계, 시험생산과 시제품생산과 관련한 기술발전계획에 예견되어 공장, 기업소들에 도입되게 된다. 그러므로 기술발전을 위한 새 기술의 도입과 시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설비비, 기술문헌작성비, 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의 규격화, 표준화를 실현하는데 요구되는 자금지출을 예견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예산편성단계에서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늘이는데서는 또한 정보화사업비를 늘여야 한다.

정보기술은 오늘날 핵심기초기술의 하나로 되고있다.

국가재정기관에서는 정보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과학기술발전사업비에서 정보화사업비로 따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예산자금에 의한 지출을 늘이는데서는 반드시 지방예산자금을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위한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옹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나라살림살이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중앙예산이 전국가적의의를 가지는 나라살림살이를 반영한다면 지방예산은 일정한 지역적범위에서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형성하고 분배, 리용하는 경제관계를 반영한다.

도, 시, 군 지방정권기관들에서는 지방예산수입을 우선적으로 늘이는 기초우에서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요구되는 자금을 지방예산으로 편성하고 체계적으로 늘여나가야 한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자금투자를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공장, 기업소들이 자체자금을 과학기술발전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것이다.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은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면서 국가에 리익을 주고 기업소자체자금을 조성하여 생산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과는 관계없이 생산물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며 시제품을 생산하거나 새로운 기술경제적기준을 수행하기 위한 자체과학기술발전계획을 세워 수행한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자체과학기술발전자금과 기업소기금에 의하여 충당된다.

자체과학기술발전자금은 기업소들이 자체충당금에서 분배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쓰기 위하여 적립한 자금이다. 한편 기업소기금은 기업소들이 자체의 실정에 맞게 생산과 소비에 능동적으로 쓸수 있도록 자체충당금의 일부를 분배하여 적립한 자금이다.

자체과학기술발전자금과 기업소기금의 의의는 생산과 과학기술의 일체화가 다그쳐지

고 기업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시되고있는 오늘날 더욱 커지고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 기업소들은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재정관리권을 활용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로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분배리용하게 되어있다. 이런 조건에서 기업소들은 생산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자체과학기술발전계획을 높이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권한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리용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소들은 기업소소득의 많은 부분을 자체과학기술발전자금과 기업소기금으로 옳게 분배하여 기업소의 생산과 관련한 과학기술적문제를 자금적으로 원만히 담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소들에서는 자체과학기술발전자금을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을 전문으로 하는 과학기술봉사단위들인 기업소안의 공업시험소, 기술준비실, 분석실, 기술설계실, 실험실들의 운영을 위한 경비예산자금으로 쓰면서 동시에 기업소기금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자금의 몫을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소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자체과학기술발전자금과 기업소기금에 의한 지출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생산과 판매를 끊임없이 장성시키고 원가저하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영수입과 기업소소득을 결정적으로 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자금투자를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에서 연구개발자금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수요는 국가예산자금과 기업소자체에 의해서만 해결할수 없다.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자금조성의 가능성은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에도 많다.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은 과학연구의 진행결과에 이루어진 생산물이나 지적제품을 화폐수입으로 전환할수 있으며 그 분배에서 일정한 몫을 자체로 리용할수 있다.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에서는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꾸리고 잘 운영하여 새로운 지적제품을 더 많이 개발할뿐만아니라 과학기술성과도입이나 과학기술정보봉사에 의한 수입을 체계적으로 늘여 자기 단위의 과학연구사업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예산자금의 지출절약으로 국가에 재정적리익을 주면서도 과학기술발전에 요구되는 자금을 해결할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에서는 자체의 과학기술잠재력에 기초하여 능동적인 과학연구사업과 기술개발사업을 적극 벌려 과학기술발전에 요구되는 자금을 체계적으로 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국가재정기관과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자금투자를 적극 늘여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과학기술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